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영적인 투자가로 불리는

존 템플턴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금년 5월호부터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인 주장환의 「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를 연재하고 있다.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 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세종대왕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번 달엔 「돈을 버는 것 보다 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인물을 만나 보도록 하자.

흔히「개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쓰라」는 말을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그 인물의 됴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영적인 투자가」로 불리는 존 템플턴이 바로 그다. 그는 한 가닥 한다하는 주식시장의 거물 중 한사람으로 25세 때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뛰어들었다.

템플턴은 피터 린치, 워런 바핏, 벤저민 그레이엄들처럼 가치투자자에 최우선을 두었다.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들만 골라내는 방법으로 흔히 주식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에게 가치투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템플턴의 이런 투자기법은 그가 주식을 투기로 여기지 않고 상업활동의 한 방편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템플턴은 1939년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1만 달러를 빌려 투자에 나섰다. 그는 중장기적인 안목

으로 1달러 미만인 104개 기업 주식을 모두 100주씩 샀다. 2차 대전으로 주가가 폭락해 있지만, 전후에 경제가 살아날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자 이들 주식이 폭등하여 대박을 터트렸음은 물론이다. 4만 달러를 벌어들인 그는 이 돈으로 1954년 「템플턴그로스펀드」를 만들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저평가 종목을 사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템플턴은 2차 대전 후에는 폐허가 된 일본에 투자했는데, 그는 일본인의 검약정신과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고 경제부흥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는 또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아시아에 투자하기도 했다.

2000년 초에는 달러화 하락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한국, 싱가포르, 호주에 분산투자 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면은 CEO들이 가져야 할 미래예측능력 중 하나다. 이런 능력은 천부적으로 타고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양의 독서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템플턴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 때의 불꽃놀이를 겨냥해 막대폭죽이며 회전불꽃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팔았다. 이때 그의 나이가 8세였으니 이재(理財)에는 무척 밝았던 것 같다.

그는 독실한 종교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확립해 나간 인물이다. 말하자면 인품을 인정받은 사람인 것이다.

템플턴은 한때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던 내셔널 지오피지컬이란 회사에 근무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은 상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제가 담당한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템플턴의 이런 질문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하나는 상사에게 그가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하나는 템플턴 스스로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템플턴은 매일 자신의 상사가 몇 시에 회사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를 체크한 후 상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템플턴이 직장 생활 새내기시절부터 깨우친 것은 시간을 자신에 맞게 사용하는 습관이었던 것이다.

템플턴은 학창 시절, 교내 축구대표 선수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훈련한 선수가 스타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좀 더 열심히 한)이런 선수가 바로 팀이 시합에서 이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팬들이 모여들지요.」

일찍이 이런 점들을 깨달은 템플턴은 사회에 나와서도 남보다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해 1년만에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템플턴은 이렇게 강조한다.

「회사에서 누구보다 빨리 승진했던 것은 상사들에게 언제든지 부지런히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한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요.」

템플턴은 워크홀릭(Workholic)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CEO는 외롭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고독을 부하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열의를 보임으로써 떨쳐 버리면 어떨까?

템플턴은 언제 어디서든 일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그

는 조그만 소형 녹음기를 마련해서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자신의 능력을 2배, 3배 편칭하는데 이용하였다.

템플턴은 고객을 만날 때면 반드시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10여분 정도 일찍 도착한 다음에 고객과 나눌 대화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심적인 안정을 취한 다음, 책을 읽으면서 고객을 기다리곤 하였다.

올해 93세인 템플턴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성공한 투자자로서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독실한 종교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확립해 나간 인물이다. 말하자면 인품을 인정받은 사람인 것이다. 그는 사업이라는 돈으로 대변되는 물질파트에 선을 행하라는 종교적 덕목을 접목시켜 돈에 대한 가치를 철학적 경지로 끌어 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남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의 부(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신성한 위탁이다.」

투자에 있어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핵심으로 한 그의 사고방식은 균중심리가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주식시장의 모호성과 우발성, 한계성 등을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모범적 투자행위는 그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척도가 되었던 것이다.

템플턴은 1987년 「존 템플턴 재단(John Templeton Foundation)」을 설립했으며, 특히 「템플턴 상(Templeton Prize for Progress in Religion)」을 제정했다. 이 상은 영국의 버킹엄 궁에서 매년 수여되는데, 수상한 사람들은 노벨 상에 버금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 상은 세계에서 상금이 가장 많은 상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다. 수상자 선정에는 힌두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

앞날을 신중하게 내다보고 착실히 계획을 세운 다음, 자신에 일에 스스로 전력투구하는 자세가 정상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교 등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종교적인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첫 번째 상은 1973년 테레사 수녀에게 수여되었으며, 제11회 수상자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A.솔제니친이다. 그는 무신론주의의 국가 소련에서 종교를 부활시킨 개혁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이 상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복음전파와 남북 화해 등에 기여한 공로로 1992년 환경직 목사가 수상하였다.

템플턴은 이 상을 제정하여 박애주의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수여 받기도 했다.

템플턴은 철학이 있는 투자는 다음과 같은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첫째가 사랑이다. 그는 자산의 일부라도 저개발 국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자선적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묘하게도 자선은 오히려 부가 되어 돌아온다. 템플턴은 전 세계로 투자를 분산해 둔 덕분에 오히려 자산이 늘었다고 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CEO들이 되새겨 봐야할 덕목이다.

두 번째는 불굴의 의지다. 템플턴의 펀드는 낡고 비좁은 사무실에서 출발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뮤추얼 펀드에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투자에 대해서 아예 외면해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남의 말에 좇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갔다.

세 번째는 도덕적 의식이다. 더러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윤리적 자세로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생긴다고 한다. 마지막은 투자에 삶의 철학까지 함께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통합의 정신이다.

템플턴이 만든 「17가지 투자의 원칙」은, 그의 삶의 원칙이라 말해도 무리가 없다.

17가지 원칙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스

스로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 그렇게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다.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템플턴은 「투자하기 전에 먼저 면밀히 조사해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며 스스로 공부할 하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건, 기본적인 지적역량을 강화해야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시장의 패닉 상황에 즉각 행동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가령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즉각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행동해야 할 시점은 그런 위기가 오기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이전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실수로부터 배우라는 것이다.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템플턴은 자신의 투자 가운데 3분의 1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성공하는 CEO와 실패하는 CEO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넷째,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통찰력을 얻으라고 한다. 마음속의 혼란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힌다.

다섯째, 자만심을 버리라는 것이다. 성공하면 이에 도취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빼고자만하기 쉽다. 이런 식의 행동은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섯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결실은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와 노력만이 뿌린 만큼 거둘 수 있게 해준다.

템플턴은 이렇게 말한다.

「앞날을 신중하게 내다보고 착실히 계획을 세운 다음, 자신에 일에 스스로 전력투구하는 자세가 정상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